

금주일어 세상을 질그릇 같다는 걸 알면 허깨비의 법이 출현하고 악마의 꽃 피움을 끊어 버리면 생사를 보지 못한다.  
(**백규경·화향품 213절**)

# 東大新聞

본사: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280-3492)  
FAX: (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770-2087)

제 1155 호

(주간)

1964. 1. 1 등록번호 나-10  
1955. 10. 13 제3종우편물(가)급인가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4년(불기2538년) 9월 7일 (수요일)

1

## 7개 학과 신설 4백30명 증원

### 농대, 생명자원과학대로 명칭 변경

95학년도 본교 입학정원이 7개학과 신설과 9개과의 증원으로 지난해보다 4백30명이 늘어난 총 4천8백명으로 증원됐다.

지난해보다 2백80명이 증원된 서울캠퍼스는 아간강좌에 △중어중문학과(60명) △전산학과(60명) △신문방송학과(60명) △광고학과(60명) 등 4개학과가 신설됐으며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식품공학과와 4개학과가 각각 20명씩 증원하기로 확정됐다.

또한 경주캠퍼스는 입학정원이 △국악과(60명) △사회체육학과(40명) △국제관계학과(40명) 등 3개과의 신설과 아간강좌의 관광경영학과 20명 증원으로 총 1백50명이 늘었다.

이번 증과증원과 관련해 기획과의 한 관계자는 "국악과 등의 신설로 종합대학의 면모를 갖추면서 음악을 통해 건학이념인 불교를 전파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신선과나 광

고학과 등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의 신설을 통해 학문탐구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캠퍼스 농과대학이 생명자원과학대학으로 명칭이 개편되면서 농학과가 식물자원학과로 농업생명학과가 응용생명학과로 농업경제학과가 생명자원경제학과로 각각 학과명칭이 바뀌었다. 또한 아간강좌의 전산통계학과가 통계학과로 명칭이 바뀌면서 주간의 통계학과와 같은 교과과정을 밟게 된다.

이번 7개학과 신설과 9개과의 증원 및 학과명 변경 개편에 있어서 학내 의견이 일정하지는 않다.

아간강좌 한 학우는 "올 1학기때 아간강좌 신설학과 학회실 문제로 심각한 공간문제에 직면했다"며 4개학과와의 신설에 따른 학회실 마련 및 기타 교과과정 연구, 교수 확보 등의 문제에 대해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학과명칭 개편에 있어서 관

련 교수 및 관계자들은 "이미지 개선에 있어서 좋은 계기가 되고 지금의 추세에 편승하는 것이다"며 좋은 반응을 보이는 반면 관련 학우들은 "단순히 교과과정 개편에 인하지 않고 학과명칭의 변경만으로 지원자 수를 늘리기 위한 방침 일뿐"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간강좌는 전산통계학과와 명칭 개편에 있어서도 "기존에 있던 통계학과로의 명칭변화로 인해 교육장비 및 교수 확보에 있어서 재정적인 절감이 이유"가 아니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 1백33개 4년제 대학(신설 2개교 포함, 11개 교육대제외)의 95학년도 대학입학정원이 올해보다 1만9천9백10명(주간 1만8백40명, 야간 9천70명)이 늘어난 25만2천4백65명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정국 정면들과 민주총정선출을 위한 청년동맹 진군식이 지난 1일 도서관앞에서 열렸다. 부총학생회장의 방중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보고가 있는 후 동아리연합회의 상황보고와 중구예술제 진행사항에 대한 중간보고가 이어졌으며 문과대학학생회가 올바른 민주총정 선출 투쟁에 있어서 학우들의 단결된 모습을 촉구하고 투쟁선언문 낭독으로 진군식을 마쳤다.

한편 이날 진군식은 학생 60여명이 참가해 조출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취재부)

## 보리수

### 한 호흡 사이의 생명

흔히 사람들은 '인생은 짧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오고야말 죽음에 대해서는 그다지 절박하게 여기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백세정명(百歲定命)을 말하기도 한다. 인간의 목숨이 백세까지는 살도록 되어 있다는 생각이다.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많은 오래 살고자하는 인간들의 애처로운 희망사항일 뿐, 아직은 대체로 인생 60, 아니면 70정도를 말하는 편이 옳다.

문제는 60이든 70이든 아니면 백세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더욱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일은 우리를 생명은 그 어디에도 보장이 없다는 사실이다. 설사 그런 보장이 있다면 또한 일체의 덧없음(無常)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다. 싫어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인간의 리얼리티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래서 삶의 완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려면 그 세월의 무상함을 절실하게 깨닫고 삶의 낭비를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원호스님은 그의 (불심수행장)에서, '순간 순간이 지나 밤낮이 가고, 하루 하루가 지나 한달이 가고, 한달 한달이 지나 문득 한해에 이르며, 한해 두해 지나다보면 잠깐 사이에 죽음의 문턱에 이른다. 이 몸 다할 날이 이르러 닥쳐 오는데 어찌 급하고 급하지 아니한가고 일깨우고 있다. 철저히 한 문제의식 대결의식 없이 나쁜

하게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한 경계인 것이다.

거듭 생각할수록 우리의 생명은 방심하면서 살만큼 견고하지가 않으며, 나태해도 좋을만큼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젊은이에게도, 이미 젊음을 다 써버린 장년·노년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누구에게나 순간 순간이 다 중요하고 그만큼 오늘 하루의 생명은 존엄한 것이다.

-(**사십이장경**)에는 소박하지만, 절실한 가르침이 설해져 있다. 어느 날 불다는 사람의 목숨이 얼마 사이에 있는가를 제자들에게 물었다. 제자들은 50년이라고도 하고, 며칠 사이라고도 하고, 어떤 제자는 목숨이 밥 먹을 정도의 사이라고도 대답하였다. 그러나 불다는 고개를 저었다. 다시 한 제자가 사람의 목숨은 숨 한번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에 있다고 대답하자, 비로소 불다는 웃었다. 너는 도를 바로 알았다고 칭찬하였다.

우리는 모두 잠깐 사이의 목숨을 지니고 살고 있다. 때문에 누구나 할것없이 '지금 살아있는 한'그것은 결코 함부로 할 수 없는 소중한 순간들이며 오늘이다. 결국 한 호흡 사이에 있는 생명 그것을 어떻게 연소시키며 사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자신의 문제에 속한다.

**李 逢 春**

## 경주 총회장 사퇴 표명 통일교 해외 연수참가 관련

제11대 총학생회장 이혁승(회계4)과 기획부장 강대규(수교4)군이 지난3일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앙운영위)를 통해 사퇴의사를 밝혔다. (관련기사 7면)

지난 7월15일부터 29일까지 국내와 국외에서 실시된 통일교 원리연구회 주최 '한국대학생 지도자 방미 연수'참가와 관련, 불교문화대학생회(회장 박치민·불교4 이하 불대)측은 지난날 30일 대자보와 유인물을 통해 공개질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총학생회측은 지난날 31일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대자보를 통해 밝혔으나 불대측은 총학생회가 밝히지 않은 연수일정 및 내용, 자료등을 공개하고 통일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또

다시 요구했다.

또한 불대는 이날 오후 5시 육야실에서 중앙운영위원회(위원장=이혁승·총학생회장)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가운데 비공개로 중앙운영위를 소집하고 이번 사태를 안건으로 제안한 뒤 지난 1일 중앙운영위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날 중앙운영위에서 이군은 "개인적으로 이번 연수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을 뿐 이렇게 큰 물의를 일으키게 될 줄 몰랐다"며 문제를 제기한 불대측에 다시 한번 해명의 기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운영위는 총학생회장의 요구에 동의하고 해명 이후 자진사퇴요구에 대한 찬반투표시를 불대측에 제안했으며 총학생회장은 "투표결과에 따라 중앙운영위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대학생회 간부 및 과학생회장 등 총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일 오후5시 불대학생회실에서 비상 중앙운영위를 소집하고 총학생회장의 해명에 이어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원이 총학생회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했으나 회의도중 회계학과, 아간 경영학과, 아간 법학과 등 3개학과 학생회들이 "학생들의 의견이 먼저 수렴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제기했다.

여학생 휴게실로 자리를 옮겨 계속된 중앙운영위를 통해 이혁승 총학생회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다"며 "이번 사태는 이것으로 마무리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졸준위 취업카드 배포 채용박람회 제출

제6대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김정호·경제4 이하 졸준위)는 입사 희망카드 1천부를 지난 6일부터 졸업장과 취업준비를 하는 학생대상으로 배포했다.

이 카드는 10월4, 5일 양일간 한국종합전시장에서 개최되는 채용박람회에 제출되며 카드 작성자는 희망기업별 면접 및 상담과 기업체설명을 듣게 된다.

또한 졸준위는 입사시험준비와 면접요령 등을 소개하는 책자를 오는 10월말에 배포할 예정이다.

### 총대 선거공청회

총대의원회(의장=한정삼·독문4)는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14일 학림관 소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선거에 관한 제반사항을 다룬 이 공청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된다.

94년도 총학생회 선거에 대한 사후평가는 93년 서울대 총학생회 선관위 부위원장 최경순군. 94년 상반기 학생회운동 총결산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고정환(아간경제4)군. 95년 총학생회 선거에 대한 사전적 전망 △대내외선거문화 혁신을 위한 모색·실천, 선거공영제에 대한 토론

## 수습기자 모집광고

### "신문 한번 만들때 원고지 몇장 쓰는지 아세요"

#### 제36기 수습기자 추가모집

- 모집부문 및 인원  
회계기자 0명  
사건기자 0명  
만화기자 0명
- 응시자격  
본교 1학년에게 재학중인 모든 분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및 집단면접  
2차 개별면접 (1차 합격자에 한함)
- 제출서류  
입사원서(본사 소정양식) 1부
-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94년 9월 1일(목)~9월 27일(화) 오후5시까지
- 원서교부처  
서울캠퍼스 학생회관 옥내지하1층, 본사 총무부  
경주캠퍼스 학생회관 2층 본사 편집부
- 전형일  
1차 전형  
서울캠퍼스 94년 9월 27일 오후6시  
학생회관 옥내 지하1층 본사 회의실  
경주캠퍼스 94년 9월 27일 오후6시  
학생회관 2층 본사 회의실  
2차 전형  
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및 학생회관앞 게시판에 공고  
※ 기지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소정의 활동비와 장학금 지급

동악 곳곳을 누비며 기사거리 취재하고  
2백자 원고지에 직접 기사쓰고  
신문제작 할때 오자 교정하고  
그리고 신문 배포하기  
그보다  
수습기자가 하는 더 중요한 일은  
원고지마다 새로운 동국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동대신문사



### 김영삼 정권의 대북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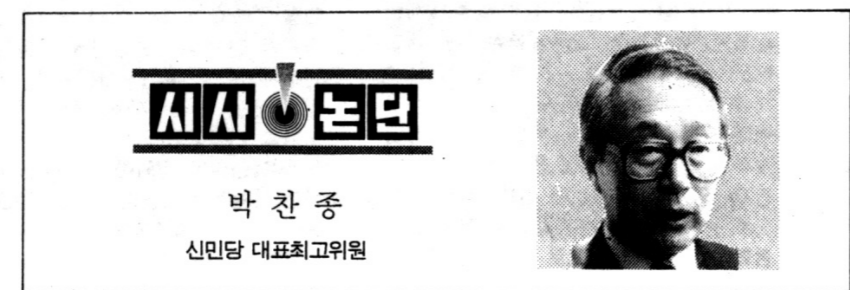
# 아마추어적 외교안보, 이제 그만

통일은 민족의 지상과제이다. 한민족 현대사의 제반모순의 고리를 풀고 새로운 도약과 새역사 창조를 기하는 전제이다. 남북 양측을 망라하여 정권의 최대의 목표이고, 대한민국 헌법은 평화통일을 대통령의 책무로 규정해 놓았다. 그래서 역대정권의 각 정부는 통일의 요체인 대북정책에 있어서 나름의 처방과 비전을 내놓곤 했다.

그러나 통일문제만큼 자주 거론되고 많이 강조된 사안이 없지 않으나 그 장구한 세월과 무수한 정책, 끊임없는 대화와 협상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말타협정에 의하여 서로 선을 긋고 등을 돌린 그때로부터 아직껏 근본적인 변화나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한 문민정부에 들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어떻게 보면 과거 군사정권때는 비록 냉전적 사고에 갇혔을 망정 정책의 일관성은 지켜졌으나 이 정부 들어서는 갈팡질팡하여 오히려 국민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주변 강국의 위세에 눌리고 북한의 공세에 번번이 밀려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의 맹점은 첫째,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부터 그렇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민족은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하는 것"이라고 하여 미국을 전통적 우방들과의 협력적 관계보다 동족인 북한과의 관계가 더 소중한다고 했다가 북한 핵문제에 인하여 남북간에 긴장과 위기가 고조되자 "핵을 가진 사람들과는 대화를 할 수 없다"고 하여 북한정권에 대해 강경자세로 나오더니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는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측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하여 일년 사이에 두 번씩이나 기존의 발언을 뒤집었다. 북한정권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김일성 북한주석과의 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기로 약



박찬중  
신민당 대표최고위원

속하여 북한 정권을 사실상 인정하더니, 그의 죽음으로 회담이 무산되자 조문과 파문과 주사파파동 등의 처리과정에서 대북 강경자세로 돌아섰다. 조문론이나 주사파문제가 대두되게 된다는 김영삼대통령의 취임식 민족우선론과 남북정상회담 합의, 김주석사후 아쉬움을 표한 일 등이 간접적 배경으로 작용하였는데도 이러한 사정은 살피지 않고 공권력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우리 정부는 일관성의 결여뿐만 아니라 확립된 원칙이나 기초가 없어 보인다. 북한 인권문제만 하더라도 북한 정권을 자극하지 않기 위하여 인권문제를 공개적,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주장과 북한 인권개선을 대북정책의 주요과제의 하나로 삼고 협상과정에서 이를 적극 거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내에서 합일점을 못찾고 있다. 대북 경협문제에 있어서는 핵문제와 관계없이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핵문제가 해결되고 남북간의 긴장이 해소되기 전에는 경협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병존하고 있다. 북한핵 투명성 확보방안에 있어서도 외부부장관은 특별사찰이라는 형식을 취하지 않더라도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라면 어떤 형태이든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고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특별사찰이 아닌 어떠한 조치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외교안보 실무책임자간의 이런 견해차이와 정책의 혼선은 북한당국의 공세적 외교가 파고들 수 있는 절호의 공백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외교안보팀 내부에는 부처간에 묘한 경쟁심리와 감정 대립, 부처이기주의와 한전주의까지 얽혀있어 서로간에 손발이 맞지않고 정책의 통일적 추진이 안되고 협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힘의 결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나 북한의 경정에서 번번이 밀리고, 국민에게도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현상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 외교안보팀을 기리켜 프로그래머들의 대국에 끼어든 아마추어 비록해자로 비유하기도 했다. 우리 외교안보팀의 아마추어적 성격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협상에서 준비된 카드를 미리 보여주는 일이다. 예컨대 북한 핵 투명성 확보를 위해 특별사찰의 형식을 고집하지않고 실질적 조치라면 형식이 달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도, 일차적으로 특별사찰을 요구해놓고 북측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을때 그때가서 북측의 양보를 얻어내는 카드로서 그것을 제시했어야 했다. 카드만 협상전에 상대방에게 펼쳐져버리면 이미 효용가치를 상실하고 폐기되는 것인데, 우리 외교안보팀은 협상이 개

시되고 테이블에 마주앉기도 전에 한전주의와 부처이기주의의 어수선 경쟁심리때문에 이쪽에서 협상용으로 써야할 카드를 미리 공표해 버린뒤 협상테이블에는 빈손으로 가서 앉는 우를 범하곤 했던 것이다. 우리측의 이런 아마추어리즘에 비하면 북한당국은 무서우리만치 공세적이고 전략적이고 통일적이고 일사불란한 협상을 펼쳐옴으로써 6공화국의 북방정책에 밀려 수세에 몰렸던 처지를 단번에 뒤집어 대화하는 엄청난 외교적 승리를 거두어 들고 있다.

우리 외교안보정책은 개혁되지 않으면 안된다.

핵을 담보로 대미관계의 개선에 성공한 북한은 이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그것에 근거하여 미군철수까지 주장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이 한국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그들 나름의 세계 전략의 연장에서, 그리고 중간선거를 앞둔 다급한 입장에서 북한의 요구조건을 적극 수용하고, 남한은 남한대로 외교가 이런 식의 도박을 거듭하면 조만간 미군철수까지 실현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미군철수까지 이루어지는 마당에서는 북한정권은 그들의 지상의 과제요 일관된 목표였던 남조선 해방과 공산통일을 더욱 진지하게 구체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 북한당국이 21세기를 앞둔 변화의 조류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런 구시대적 낡은 혁명이념에 집착하여 오판과 오류를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외교안보정책은 개혁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확고한 원칙과 기초를 수립하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외교안보팀내의 합일된 노선으로 정착시키고 이를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 필요하다면 아마추어적 오류를 거듭해온 외교안보 실무책임자들의 교체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 사설

## 교수회 역할을 기대한다

예상했던 대로 2학기에 접어들면서 총장선출 방식을 둘러싸고 일파만파 내면적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2학기를 여는 학사보고회 석상에서 재단이사장이 총장직선제에 관한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표면화된 총장선출방식 논의는, 외부에서는 이미 한바탕 토론회가 이루어진 사람이다. 지난 여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 대학총장 세미나와 사립대학총장협의회 등에서 총장직선제가 지난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이를 받아 언론은 한술 더 떠서 마치 "직선제"가 나쁜 제도이고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대상인것 처럼 확대보도 하였던 것이다.

어떠한 제도이건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고 그에 관한 찬반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요즘을 문제가 되고있는 총장직선제에 관한 논란은 보다 나은 합리적 방향으로 제도발전이 아니라 "총장직선제 폐지론"이 언론에 의해 일방적으로 여론화 되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일부 대학에서 직선제가 폐지되고 재단에 의한 임명제나 추천제가 부활되면서 총장선출을 둘러싼 마찰이 일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대학의 상징이요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총장은 대학 구성원 모두로부터 그 권위를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총장선출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총장직선제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교수들의 결집체인 교수회의 합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총장선출을 앞두고 하나같이 자기논리에만 빠져있는 다양한 목소리들을 조율하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총장을 선출할 일차적인 책임이 현실적으로 교수회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다른 학내주체와는 달리 오히려 교수회의 총장선출에 관한 입장이 정리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물론 새로운 집행부의 구성과 경주캠퍼스의 회장선출들이 늦어 지는데 따른 결과이긴 하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때 하루빨리 교수회가 구성점이 되어 대학 재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신속하게 공론화시켜 대학구성원들의 공개적인 의견조정을 유도해야 하고, 정해진 제도라면 정당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가 또한 교수회에 있다는 것이다. 동국의 역사상 처음으로 직선총장이 대학을 책임졌던 지난 4년을 거슬러올라 이념의 총장선출 과정에서는 갈등을 극복하고 모두가 축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교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기대한다.

### 동연 '장외농성'의미

## 비좁기만한 공간, 동아리 문제 아니다 학교당국 대안없는 미봉책, 학생불만 고조

신설학과 학회실 마련, 예술대 공간 문제 등으로 올 상반기를 장식했던 '공간문제'가 학생회관으로 옮겨져 동아리연합회(회장=이영석·물리4)의 장외농성으로 치달게되는 등 그 심각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다.

동연의 장외농성의 원인은 '공간' 서울시 소유로 되어있는 수련장 2층에 자리잡고 있던 두동아리 풍계구름과 애드러쉬는 94년 새내기 새로배움터 기간중 학교의 요구에 따라 수련장에서 나오게 되었다. 처음 자리를 마련할 때 학교의 반대

가 있었으나 학교안에서 공간확보가 어려워 임시로 있었기 때문에 예정되었던 일, 두 동아리는 사후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학생회관을 배회하게 되었다. 총학생회가 3년만에 부활하자 학생회관2층 손짓사랑회와 민중미학연구소는 총여에게 방을 내주게 되었다. 지금까지 사용하던 자리의 원래 주인이 총여였고 총여부활전까지만 동연이 관리하기로 했었기 때문이다. 한편 학생회관5층에 자리잡고 있던 검도부는 여름 동안에 도복이

색어플러가자 안정적 큰 공간확보를 요구하며 상설전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창문이 없는 등 환풍 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좁은 공간으로 인해 도복이 색어플러가게 된 것.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리연합회는 1학기 전체동아리 대표자 회의의 통해 공간문제 소위원회 구성하는 한편 제안서와 설문지를 각 동아리에 배포, 공간문제의 발단은 학교측의 학생을 배려하지 않는 무성의와 비행정성 그리고 동아리간의 서로 단결되지 않는 측면이 강

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통대회에서 인준된 공간문제 대책위 명의로 신입생미팅과 동연의 사업과 회의에 참가하지 않는 '길외'에 대한 재평가를 발동하게 되고 동아리의 내부정화를 통한 동아리의 강화와 학교측과의 전면전 실시를 결의해 장외농성을 시작한다.

동연부회장 이행재(야간 경영4)군은 "작게는 공간문제 해결이지만 전통대리간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학생자치활동 보장, 심각성을 알려내는것이 목적"이라며 장외농성이 단순한 공간확보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문제발단은 당국의 '무대책' 지금 풍계구름등 4동아리는 최소한의 안정적인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임시공간의 확보를 요구하며 민중미학연구소는 검도부방에서 손짓사랑회와 검도부는 세미나실에서, 풍계구름은 동연실에서 임시로 자리잡고 있다. 상반기 전통대회에

서 3년동안 방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중동아리로 승격한 애드러쉬는 임시자리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과연 현 문제의 발단은 무엇인가.

지금 상황을 단순히 동아리만의 문제로 보아 넘겨야 하는가.

원인은 진보적 대학문화에 기여하기보다는 점점 가중적이고 폐쇄적으로 변해가는 동아리 활동의 정체성과 학생자치활동보장도 면학분위기 조성에 우선하는 학교행정의 기조가 아닐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공간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 만드는 발단은 학교행정일 미봉책으로 빠뜨리고 장기적이며 구체적인 대안없이 학교기우기에 정진없는 당국의 정책이 아닐까?

(곽주영 기자)

### 동국만평

박현진



새로운 생각에서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포스코와 함께 철강한국의 새 가능성을 제시할 대학인 여러분의 참신한 생각을 기다립니다.

## 제1회 철강 논문상

- 1. 응모자격**
  - 국내·외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전공불문)
- 2. 응모서류**
  - 논문: A4용지 20매 내외, Word Processor 작성 (논문요약면 4매 별도 제출)
  - 제출종류: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내외)
- 3. 논문주제**
  - 철강 기술관련 미래분야 중 본인 특임 주제 선정
  - 사회과학: 철강업의 경쟁력 확보 및 장기발전방향, 국제화방안, 신노사문화 정립 등 일반주제
  - 예시) 철강산업의 미래상과 장기발전 방향
  - 철강기술: 금속재료, 컴퓨터, 제어기술, 강구조, 엔지니어링, 에너지, 신소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주제
  - 예시) 강구조: 교량용 강재의 적정성분 및 요구특성에 대한 고찰
- 4. 시상**

구분	편수	부상
최우수상	1편	● 상패 및 부상 1,000만원
우수상	2편	● 상패 및 부상 500만원
장려상	3편	● 상패 및 부상 300만원
입선작	5편	● 상패 및 부상 100만원

  - 입선자에게는 포항제철 및 계열사 입사 희망시 우대조치
  - 논문요약지 전원에게 참가 기념품 증정
- 5. 논문제출**
  - 제출기간: '94.12.15 ~ 12.31 (7월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100-191)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16번지 포스코빌딩 포항제철 인력관리부
  - 제출방법: 우편접수
- 6. 기타**
  - 공모작품은 창작물로서 미발표 작품이어야 함
  - 입선논문은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며, 당사는 자체행동에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기타사항은 포항제철 인력관리부 문의바람(Tel: 02-7584-431~3)



**기적시리즈**  
**김일성 사망 후 남한 사회 변화**

1. 정계 보수주의 실체와 민민운동압의미는
2. 남한 경제협력 가능성은 몇%
3. 정상회담 언제 재개될 것인가

**시사 초점**  
**조계사내 공권력 투입 우재 이런일이...**

# 정치적 걸림돌 제거...경공업부터 경험 시작

## 남북경협, 합작 투자로 중소기업 적극적 참여 유도해야

### 남북경협의 가능성

최근 북한의 적극적인 대외개방과 남북 경협정책의 배경에는 북한경제의 침체상황이 존재한다. 70년대까지 상당한 성과를 기록하던 북한경제는 80년대 이후 성장의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사회주의 경제권이 붕괴하는 등 외부적 환경이 크게 악화된 90년대 들어서 연속 4년간 마이너스의 경제성장을 기록하는 등 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다. 북한이 1991년 12월 나진-선봉지구를 '자유경제구역'으로 선포하고, 청진항을 자유항으로 지정하는 등 중국식 대외개방정책을 부분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각종 외국인투자관련 법규들을 개정하거나 제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경제침체로부터 벗어나 성장을 재개하려는 절박한 필요에 의한 것이다.

기술수준의 격차가 그리 크지 않고, 수출드라이브를 통해 공업화를 추진한 경험이 있는 남한기업과의 경험은 이러한 북한의 대외개방정책이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매우 절실하게 요구되는 과제에 불림없다. 남한기업으로서도 북한에 대한 투자는 매력적인 프로젝트이다.

대북투자에 대한 남한기업 특히 독점자들의 요구는 '지구최후의 처녀지'인 북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장기적인 포석의 일환이라는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북한에 대한 투자는 현 시점에서 경제적 유인을 충분히 부여하고 있다. 즉 80년대 후반 이후의 임금 상승으로 저임금에 기초한 국제경쟁력을 급속도로 상실하고 있는 남한의 경공업 기업들은 양질의 노동력을 낮은 임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북한지역에의 투자는 당장 경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프로젝트이다.

따라서 남북경협을 가로막는 정치적 걸림돌이 제거된다면 남북경협은 경공업분야의 합작투자를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경공업뿐만 아니라 북한이 아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진-선봉지역의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이 지역에 북한이 유치하기를 희망하는 전자 부품 및 가전제품(조립)산업의 합작투자도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남북경협의 올바른 방향

남북경협의 이러한 경제적 잠재력이 현

실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경협에 대한 남북양측의 의지가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최근의 북한의 대외개방정책의 전개과정이나, 남북경협에 대한 태도 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남북경협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인 의지는 의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생 김정일 체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의 하나가 경제난의 해결이고 보면 실용주의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김정일 체제는 남북경협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북경협의 장애에 대한 열쇠는 남한당국이 쥐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며, 남한당국이 남북경협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같은 의미로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남북경협은 북한으로서 매우 정치적 부담이 큰 것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경협에 관한 열망을 식히는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북한은 정치적 부담이 큰 남북경협보다는 일본 등 제3의 나라와의 경험에 보다 무게를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간의 정치관계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긴장과 완화의 과정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치와 경험의 연계라는 남한당국의 정책기조는 본질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될 수밖에 없는 합작투자에 근본적인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남북경협은 남북양방이 합의한 전체적인 틀 내에서 정치적 상황변화와 독립적으로 전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경협은 경제적 합리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체제에 미칠 파괴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북한측의 태도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경협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 특히 북한의 정치-경제체제와 긴밀한 관련을 맺는 부분 예컨대 노동력의 관리와 같은 사항은 남한한 쌍방의 협력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남북경협이 독점자본을 중심으로 막힌 지역의 개인 노동력 착취의 형태로 진행되거나 북한을 흡수 통합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북한의 반발에 의해 남북경협 그 자체가 활발하게 전개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갖는 본래적인 의미가 크게 퇴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남북경협 특히 합작투자에 있어 대기업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가능한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경협에 대한 이러한 기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한당국의 남북경협에 대한 태도가 전향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남한당국은 실효성 없는 핵과 경험의 연계정책을 포기하고 정치와 경험을 분리하는 등 남북경협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 석 기

(한국사회과학연구소 경제연구실 연구원)

### 박용 총장 발언 파문 일지

## 신공안 '불량 폭탄' 불발

40년만에 처음이었다는 점등더위를 무색하게 했던 신공안의 열풍이 몰아닥친 올여름. 연이은 주사와 발언으로 신공안이란 불량폭탄의 뇌관을 자처한 박용 서강대 총장이 지난 2일부터 학부강의를 맡아 오던 의도(?)를 마치고 사제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러나 지난 91년 잇달은 분신을 두고 '배후에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민주화 열기에 제동을 건 바 있는 박총장의 지난 행적을 인지할때 역시 이번 공안정국의 '주체'였던 박총장의 행적을 유야무야 날릴 수 없는 것이다.

'용기있는 지식인', '제자를 고발한 스승'이란 극단적인 평가를 함께 받고있는 박총총장의 지난 2개월여간의 행적과 발언 재조명 및 공안탄압 사례를 돌아보며 공안정국의 허울을 살펴보기로 한다.

박총총장의 일련에 발언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도박적이기까지한 공격적 언사이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증거와 개인의 신변차원에서 벗어나지 않는 주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자신의 입으로 계속 바뀐다는 점이다.

또한 박총장의 발언 뒤에는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검찰이 이례적으로 내부자료를 공개하는 등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공안당국에 의해 제시되고 있는 것 자체가 박총장 발언을 계기로 과거 독재사

황과 같은 상황을 유발하기 위한 수구세력의 이해와 맞물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일 검찰측 경감대 교수 9인 '한국사회의 이해' 교재 관련 소환명령, 교육부, '학생운동권에 시위자금 유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총학의 교내 수익사업 일체 금지 '전면' 차단, 차현민(교려대 석사과정) 등 8인 '김일성주의 청년동맹' 조직건설혐의로 구속.

▲8일 전남대 학생회 분할소 사건과 관련 전남대 총회장등 2인 구속.

▲12일 '범민족대회' 서울대 장소 불허, 서울대 학생회관 압수 수색

▲14일 미국 한인인론 회견- "학원뿐 아니라 야당에 까지 7백50명 주사파 침투"

▲16일 검찰, 박총총장 상대 주사파 발언 확인 착수 시인.

▲20일 검찰, '수사의 단서가 될만한 내용이 없다'고 발표

▲26일 여의도 클럽 토론회- "전국대학의 주사파 1만5천추정" "학생회장이 주사파면 통상적으로 간부도 주사파" (추산 근거를 묻자) "7백50명 주사파는 야당뿐 아니라 여당까지 합산한 것" "그간의 폭로 내용은 고해성사, 노동신문 및 집회 유인물을 통해 확인한 것"

▲27일 용인 외대법 '주체 사상 연구회' 3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이재환 기자)

### 동악로

### '서툰 정리'

"통일교 원리연구회 주최 대학생지도자 방미연수로 인해 하여야만 불발과 불자 하위분과 격정을 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학원정상화를 위해 자진 사퇴하는 바입니다."

지난 2일 오후 7시 총학생회장 이혁승군이 자진사퇴의사를 밝혔다.

지난 8월31일 총학생회장의 학생회칙위반과 관련해 불교문화대 학생회간담회안을 작성, 전달후 각 단대자치기구에 불과 3일만에 벌어진 결과이다. 하지만 총학생회장의 의도와는 달리 지난 6일 일부학과 학생회장들은 중앙운영위가 권한을 불교문화대로 위임한 경우와 총학생회장 자진사퇴 결과과정 규명등을 요구하는 '총학생회장 사퇴 진상규명 질의문'을 학내에 배포하고 "7천 학우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편법으로 사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발표함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총학생회장 사퇴수습의 전망은 불투명하게 되었다.

이에 불교문화대측은 "총학생회장사퇴 이후 계속적인 사건확대는 학우들

면학분위기를 여러가지 점에서 좋지않다고 판단, 사태를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2학기 개강과 함께 모든 단대-자치기구의 관심은 이번 사태에 집중되고 2학기 사업준비가 미비했던 총학생회는 사업시작도 전에 미비 현상이 됐다. "학원 탄압이 심했던 7월에 공인의 입장에서 통일교 방미연수에 동참했다는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지만 학생기구는 2학기 사업들이 계속적인 학생기구 내분으로 항할때에 서로의 불신과 감정대립만이 있을 뿐입니다."라는 어느 한 학우의 말은 학생기구의 안정화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모든 간부들이 일심단결하여 동국의 발전과 온방굴의 발전을 위해 다시 태어나는 기본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이번 사태이후 총학생회의 각오다.

학생기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이번 총학생회 사퇴는 학생기구의 존재의미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 아니었나 싶다. (이민영 기자)



**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삼성**

다이렉터가 나온 뒤 대학이 신종속도 - ①

**쌍권총 대신 데이트신청이 줄을 섰다?**

가격을 내려도 너무 많이 내렸다. 기술이었다.

**69만 8천원**

■ 삼성 마이레이저 II-5 (SLB-3105V)

고성능 PC엔 고성능 레이저프린터

**삼성 마이레이저 II-5**

세계 1등 제품만을 만들었습니다.

SAMSUNG 삼성전자

<p>● PC부품</p> <p>■ 메인보드 : 713-4734</p> <p>■ 파워서플라이 : 718-8645</p> <p>■ 하드디스크 : 714-1632</p> <p>■ 모니터 : 715-7975</p> <p>■ 대안 모니터 : 042-257-5815</p> <p>■ 대안 모니터 : 042-257-5815</p> <p>■ 대안 모니터 : 042-257-5815</p>	<p>■ 프린터</p> <p>■ 레이저프린터 : 051-864-0787</p> <p>■ 레이저프린터 : 051-864-0787</p> <p>■ 레이저프린터 : 051-864-0787</p> <p>■ 레이저프린터 : 051-864-0787</p> <p>■ 레이저프린터 : 051-864-0787</p>	<p>■ 레이저프린터</p> <p>■ 레이저프린터 : 051-864-0787</p> <p>■ 레이저프린터 : 051-864-0787</p> <p>■ 레이저프린터 : 051-864-0787</p> <p>■ 레이저프린터 : 051-864-0787</p>	<p>■ 레이저프린터</p> <p>■ 레이저프린터 : 051-864-0787</p> <p>■ 레이저프린터 : 051-864-0787</p> <p>■ 레이저프린터 : 051-864-0787</p> <p>■ 레이저프린터 : 051-864-0787</p>
--	---	---	---



1993년 문화체육부 발행 '한국의 종교 현황'에 따르면, 1992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한국의 종교인구는 6천6백2십9만2천4백9명이다. 또한 불교·개신교(기독교)·천주교·유교·천도교·원불교·대종교 기타 종교의 순서를 집계한 이 자료에 의하면 각 종교들은 1백64개 교단(각 종교별 종파)과 5만6천8백89개소의 교당(사찰, 예배당, 향교 등) 각 종교 집회소를 갖고 있다. 그리고 각 종교의 교직자(성직자)수는 모두 17만9천3백1명이다.

그런데 이 자료는 위에 열거한 각 종교들에서 자체적으로 제출한 자료를 집계한 것이지, 현재 한국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종파와 그 신자들을 정밀하게 조사한 숫자는 아니다. 한국에는 이들 종교 외에도 군소 외래종교와 소위 신흥 민족종교 등, 그리고 전통적인 무교가 있음으로 실제 한국의 종교상황은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하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논외로 한다. 문화체육부의 자료만으로도 한국사회의 다종교적 상황(multi-religious situation)을 이해하기에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한국적 다종교 상황이란 동일한 인종, 동일한 언어, 동일한 역사전통을 가진 국가 공동체내에서 여러 종교가 심각한 갈등없이 공존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한국사회의 유교·불교·기독교·천주교와 같은 세계의 보편종교가 각기 거대한 종교 집단을 형성하고 있으며 동시에 군소종교도 수없이 많다. 이러한 각 종교들은 상이한 신념체계와 가치체계를 가지기 때문에 상호 배타적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는 기이하게도 공생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한국사회는 인류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세계종교의 전시장이라는 평을 듣는다. 이러한 한국의 다종교 상황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정한 종교를 국교로 인정하지 않는 한국의 다종교 현황, 즉 종교적 다원주의는 어떠한 종교도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할 수 없게 한다. 조선조 한시대에 유교가 확고하고 있었던 정치적 통합력, 사회질서의 조직력과 같은 권위를 가진 종교는 현재 한국사회에는 없다. 특정 종교의 가치관이나 신념체계가 국민 대다수의 의식을 지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은 서구사회에서 기독교 문화가 중심세를 이루고 있는 것과 다르다.

△문화체육부의 '한국의 종교 현황'에

의한 한국의 종교인구는 6천6백만명이지만, 실제 한국의 총인구는 1992년 기준 4천3백여만명(통계추정)이다. 종교인구가 절대인구수보다 무려 2천3백여만명이나 많게 나타나 있다. 이런 현상은 무엇을 말 하는가.

각 종교집단에서 자기종교인구를 과장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각 종교의 자기인구 집계에는 많은 허구성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지만,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서 우리는 각 종교의 교세확장 집념이 얼마나 강한가를 확인할 수 있다. 자기종교의 인구수를 과장한다는 것은 교세의 과시와 바로 통하기 때문이다.

△각 종교는 신자수의 확보에 있어서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간의 경쟁관계는 종교적 갈등의 여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유일신관을 내세우고 있는 서양종교가 전통적 종교(유교, 불교 등)들의 가치관을 해체하고 그 위에 자신들이 가치체계를 구축하려는 유일주의를 강력히 표방할 경우, 한국사회는 종교적 분쟁에 휩싸일 소지도 있다. 일말 불안한 공존의 양상이다.

△다른 한편 종교신자가 절대인구를 상회하는 현상은 한국인의 복합적인 종교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각 종교의 신자집계가 과장이 크다고 하더라도 전혀 사실무근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사정을 감안할 때, 한국인은 적어도 두개 이상의 종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부모의 49제는 사찰에서 지내고, 기제사의 경우 유교식으로 가정에서 받드는 사례는 한국인 대다수가 행하는 일이다. 기독교 신자도 담당하던 무당에게 짐을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국인이 종교에 대하여 관용적이며 가치중립적인 종교적 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 성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종교인구면에서 보면 불교 2천여만명, 개신교 1천4백여만명, 유교 1천여만명, 천주교(Catholic) 3백여만명이다. 이 가운데 유교인구 1천여만명은 기독교(개신교, 천주교) 1천7백여만명에 비해 훨씬 열세이다. 전교 2백여만 밖에 되지 않은 기독교가 전통종교인 유교를 훨씬 압도하고 있다.

서구문화에 대한 한국인의 상대적 선호감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세기에 주장되었던 동도서기론적 사유의 뚜렷한 퇴조현상이 아닐 수 없다.

현대 한국유교는 전환기에 처해 있다. 19세기 말엽 인재등용의 전통적인 관문이

었던 과거제가 폐지되고, 이어서 한·불통상조약에 의한 기독교의 허용으로 말미암아 한국유교는 자신이 한국역사에서 독점적으로 누려 온 정치적, 종교적 권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20세기 들어서는 일제의 강점에 의해 유교교단의 자주성을 상실하고 말았으며, 1945년 해방 이후에는 서양문물의 홍수 속에서 구시대유를 취급을 받았다. 한국 유교는 이 1세기를 거치는 동안 정치적 권력을 잃었고, 교단의 해체 현상과 복구 재건이라는 과정을 거쳤다.

유교가 한국에 전래된 기록은 정확하지 않지만, 서력 372년 삼국기의 고구려에서 태학을 설립하고 귀족의 자제들을 교육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에 의거하면 그 이전부터 한국사회에 유행한 학문이자 사상이며 종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만 근 이천년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유교는 한국사에서 전통적으로 경제적인 정치원리로 작용하면서 집권세력의 중추적 이데올로기(이념)로서 기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정과 사회의 규범 그 자체였다. 그리고 조선왕조 오백년에 있어서는 국교로서 정교이념의 산실이며 각종제도의 모태였다. 실로 한국유교는 전통적인 정치문화, 도덕문화, 정신문화의 생산자였던 것이다.

그러나 근현대사에 있어서 유교는 사회변동과 더불어 이러한 문화생산자로서의 역할은 좌절당했고 급기야는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비난을 받는 비운을 겪는다.

21세기를 목전에 둔 오늘, 한국에서 유교는 전통가치의 재조명에 의해 서서히 재창조되어야 하는 사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국가들의 급격한 경제성장은 한국 유교문화에 대한 재평가를 촉발시켰으며, 무엇보다도 서구문물의 영향에 따른 인간심성의 황폐화, 도의의 타락 등이 한국사회에서 전통유교의 새로운 역할창조를 요구하는 동기가 되었던 것이다. 한국유교교단이 맞이한 도약적 전환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역할수행을 위해서 한국유교는 거듭 태어나는 심정으로 몇가지 당면과제를 수행하여야만 한다.

자기정체성의 확립이 시급하다.

절대다수의 한국인이 오늘날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고, 가족생활에 있어서도 유교적 규범을 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 반사회의 실습·도덕도 유교적인 예의 기

## 한·중 학술회의 '공자사상과 21세기' 주제 논문 발제 — 한국적 다종교 상황과 유교

# 한국사회, 세계종교 전시장 대중 안은 새로운 종교 이념만이 살길

반위에서 형성되어 있다. 한국인들은 아직도 유교적으로 현실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한국인이 유교인이라고 말하여도 무방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자신이 종교적으로 유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1985년에 한국정부는 자기확인방법에 의한 종교별 인구조사(인구 및 주택 CENSUS 집계)를 실시한 바 있다. 그 집계 따르면 한국의 유교인은 사십팔만명에 불과하다. 사천만인구에 유교인구가 사십팔만명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지만, 자기종교확인에 의한 방법으로는 이 숫자가 전부였다. 유교·불교 등은 기타 서양종교에 비해 성원개념이 희박하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절대소수의 숫자는 한국유교의 정체성(identity)의 위기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유교가 한국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능완수를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자기정체성의 확립이다.

### 종교성의 확립이다.

다른 제종교들과 비교하여 유교에는 종교적인 한계성이 있다. 오늘날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개념은 내세관과 구별관에 있다. 유교적 종교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수기인인과 같은 것은 고상한 이념의 철학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심에 팔, 구이다. 영생을 믿고, 현실적 생에 대한 기복이 종교라고 믿는 현대의 풍토에서 영생주의·기복주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유교로서는 종교적 인입지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유교에도 중요 의식으로서 제사가 있지만, 이것은 보본의식, 가계의식에 근원하고 있을 뿐, 내세적 영생주의나 현재적 기복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유교인들이 유교를 종교라고 확신한다면, 유교는 이제 대중을 자기 품안으로 끌어 들일 수 있는 새로운 종교이념을 창출하여야 한다.

유교는 전통적으로 구세·구도의 이념이 강렬하였다. 그러나 이 구세·구도의 이념은 과거 소수 엘리트(elite)의 독점물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현대사회는 대중사회이다. 과거에 가졌던 차별 의식적 엘리트주의가 대중을 인도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한국사회에서 유교의 부흥은 대중운동에서 찾아야 하고, 대중운동은 유교가 강력하고도 호소력있는 종교적 실천이념체

계를 새로이 창출할 때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또한 이념운동을 수반하여야 한다.

현대 한국유교의 실천주체는 성균관과 유도회이다. 그런데 성균관과 유도회는 공자에 대한 춘추제학외에 사회에 대하여는 도덕운동을 그 활동의 주목표로 삼아 왔다. 퇴폐해 가는 도의를 일으켜 세우고 명인론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유교가 여타의 고등종교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전교하려면 이제 단순한 도덕회복론만을 주장하여서는 안된다.

유교를 하나의 이념집단화할 수 있는 이념운동으로 차원을 상승시켜야 한다. 도덕집단이 아닌 이념집단으로의 변신이 있을 때, 비로서 한국유교는 사회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할 수 있다.

유교가 구사상으로 매도되는 원인중의 하나는 유교의 사상성에도 있다.

진보에 대한 부정적 관념, 즉 복고주의는 오늘날 유교의 발전을 가로 막는 사상적 요인이다. 인류가 지향해야 할 이념사회를 함상 고지성인인 요·순의 시대에서 찾아가 하면 하·순 주 삼대를 인문과 각종 제도의 전범으로 삼고 있는 것이 유교주의 역사관이다. 한국유교집단에는 유교주의라는 용어자체가 없기 때문에 논의의 대상일 수도 있지만, 은연중에 체질화된 이러한 복고주의와 순환론적 사고방식은 불식되어야 할 것이다.

진보성, 다원성에 대한 신념을 전통유교 속에서 개발할 때, 한국유교는 현대가 추구하는 발전의 개념과 부합할 수 있을 것이며 다원주의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다종교 현황은 두 가지 특색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공존과 갈등이라는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몰락주의, 배금주의의 풍조이다.

한국고등종교들은 각기 상이한 신념체계와 실천체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공존하고 있다. 상호간에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종교들이 마찰없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종교적 친화성과 화를 존중하는 민족정신에 그 뿌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종교가 배타적 유일주의

와 종교적 제국주의를 표방할 경우, 종교간의 갈등과 분쟁은 필연적이다. 특히 근세에 유입된 서양종교집단과 불교등과 같은 전통종교집단간의 대립은 언제라도 가능한 요인을 내포하고 가지고 있다.

한국적 다종교 상황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갈등구조에서 완충역을 담당할 수 있는 종교는 한국유교이다. 유교는 호생지덕을 찬미하고 중화의 정신을 현상하는 종교이다. 언젠가 있을지도 모를 다종교 상황의 대립을 해소하고 화해시킬 수 있는 종교집단은 유교라는 점에서 그 존재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유교는 사를 배제하고 공을 내세우며 근검정빈을 지식인의 정신으로 삼아 왔다.

현금 한국종교들은 거대몰락주의와 상업적 배금주의에 물들고 있다. 종교의 이러한 비본질적 행태들을 교훈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종교는 바로 유교이다. 유교는 아직 몰락·상업주의에 물들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 종교적 구조상 그럴 가능성이 없다. 청결한 종교로서의 유교의 이러한 면모는 한국종교사회의 정화에 하나의 귀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점에서 유교의 종교성, 그리고 새로운 지식인상의 정립을 불가결하다.

한국유교는 한국의 전통적 가치를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창조하였고, 동시에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교이다. 전통정신의 재정립과 그 정신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종교 역시 유교이다.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은 국제화, 세계화이다. 국제화, 세계화란 국민의 지식수준과 의식수준을 국제적,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을 뜻하며 개방화, 다원화, 경쟁화를 포괄한 진보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적, 세계적의 기준은 서구선진사회를 표본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경제수준, 문화수준을 따라잡자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화, 세계화는 단순한 모방이나 추종을 뜻하지 않는다. 자기고유한 것의 세계화도 거기에 포함된다. 또한 국제화란 근본적으로 자기것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한국유교가 개혁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는 소리는 궁극적으로 한국정신의 확대 재생산과 그것의 세계화에 있다.

송 재 운

(문과대 국민윤리학과)

## 서울비비·이5.

서울이동통신이 매년 총 매출액의 18%를 연구·개발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 미래를 설계하는 회사

**눈앞의 이익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합니다.**

AT & T, NTT 등 세계유수의 통신회사도 이렇게 과감한 투자는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통신산업의 미래를 위해 매년 총 매출액의 18%를 과감히 연구개발비에 투자하는 최첨단 종합이동통신회사, 서울이동통신.

최고의 기술과 완벽한 서비스로 진정한 고객 만족을 실현하며 더욱 가까워진 꿈의 텔레포미 시대 위해 Digital TRS, 무선데이터, PCS, 위성통신 등 차세대 통신산업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미래로 가는 수퍼하이웨이를 개척해 가는 일 - 바로 서울이동통신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서울이동통신**  
대표전화 : (02)5599-114, FAX : (02)5599-115

### 달 하나 천 경 에

## 대학의 다원화



기상이변으로 돌리고 있는 올 여름의 혹서도 처서가 지나고, 백로가 며칠 남지 않은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9월이 되면 정중동(靜中動)속에 동악에도 새로운 기대속에 새로운 활력이 솟아나고 있음을 느낀다. 나는 나의 연구실에 찾아와 앞으로의 진로를 얘기하는 학생들을 만날때마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현실, 아니 우리나라 전체교육의 현실을 생각해본다. 서정주시인의 시나 송승식의 노래로 더 친숙함을 느끼게 되는 전복 고창의 선문시에는 유난히 나의 관심을 끄는 건물이 있다. 그것은 대응전 맞은 편에 있는 만세루이다. 이 건물의 특색은 대들보나 석가대 기둥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은 나무들로 되어 있다. 그곳에서 쓰이고 있는 재목들은 한결 같이 크게 썩은 것은 하나도 없고, 구부러지고 가지가 두껍게 된 것들을 그대로 이용하여 대들보로, 석가대로 쓰고 있으며 썩은 것은 이어 붙여 기둥으로 쓰고 있다. 보통사람의 상식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여겨 화목으로 쓰여질 나무들을 하나하나 그 쓰일 곳을 찾아 쓰고 있다. 이것은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듯하다.

학생 개개인이 자기의 적성에 맞는 길을 찾아 가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 대학교육의 목표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은 교육정책의 난맥속에서 각종 규제와 간섭, 권위적 관료주의에 순종하며 당국의 눈치보기에 바빠 대학이 가지고 지켜야 할 틀을 잃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교육의 70%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사학에 대하여 그 재정적 지원은 1% 정도밖에 주지 않으면서도 획일적인 규제와 감독의 일면도로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대학은 자율성을 갖지 못하고 관치행정의 희생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학의 자율성의 기초가 되는 학생선발권은 그동안 11번이나 그 골격을 바꾸어 오며 학생선발권에 대한 국가관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이제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획일적인 대학상이 아니라 다원적인 대학상을 전제로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 전국의 모든 대학을 동일한 기능을 가진 대학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각 대학들이 제각기 특색있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UR타결로 인하여 이제는 대학도 개방화시대를 곧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대학들이 국제적으로 도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미의 페루 수도인 리마의 다문화관에 가면 대로를 사이에 두고 학교와 교도소가 서로 마주보고 있으며, 주위에는 고층의 오피스빌딩과 고색창연한 헌법재판소의 건물이 있다. 나는 지난 8월 이거리를 거닐면서 저 학교의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공부할 열심히 하면 오피스빌딩에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길 건너 교도소로 직행한다고 가르치거나 그렇지 내뱉대며 생각하며 웃음을 지은적이 있다.

아직도 혼미속에 있는 우리나라 대학교육정책이 지금부터라도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었으면 한다.

박 영 길 법과대학과 교수

## 문학단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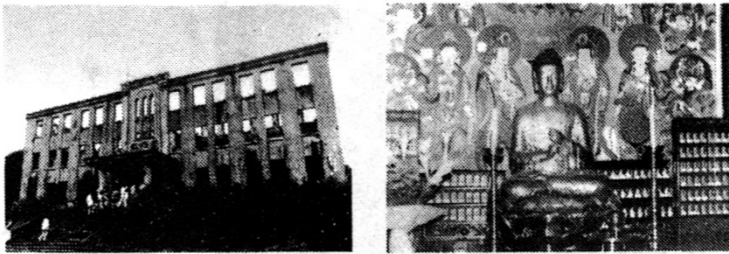
### ◇새책 '재미있는 어원 이야기'

본교의 신용태(일문학)교수의 '재미있는 어원 이야기'에 이은 두번째 책으로 한자의 어원과 함께 한국어의 어원 이야기가 담겨있다. 한자의 밑바탕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 이 책의 특징으로 한자전문가적 소양을 쌓을 수 있다.

신용태 지음/서평사/값 5천원



## 역사의 숨결 통일의 길목 철원을 찾자



## '피안 세계로의 염원'—도피안사

### 꿈속에 나타난 부처님 계시로 절세위

전날 저녁무렵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아침이 밝도록 여전히 굵은 빗발을 뿌리고 있었다. 서울에서 철원까지는 여유있게 잡아도 3시간, 일정대로라면 11시쯤 첫 기차지인 한탄강 고성역에 도착하게 될 예정이었다.

그러던 새 어느덧 버스는 철의 삼각 전적관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철의 삼각 전적관 민간인 출입금지 구역이던 이곳에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려던 지난 89년에 개관한 전쟁 기념관이다.

이철(국회의원-민주당) 후원회에 주관하는 현장탐방 '철원, 민통선 일대 답사, 및해전부터 일기 시작한 답사기쁨은 여기저기 마구 생겨나는 답사객들로 조용하던 유적지들이 몸살나게 만들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은 선조들의 열을 찾겠다는 뉘는 관심에 어느 누가 돌을 던지랴.

차에는 답사객들의 교양을 위해 철원이 고향인 민영 시인과 문화유산답사회 이형철 총무가 함께 했다. 덕분에 차안에서의 지루한 시간을 이슬만과 김일성의 가운데자를 따

서 불었다는 '승일교'가 사실은 다리 를 만든 김승일 장군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란다. 철원에는 사계 절 따뜻한 물이 솟아나고 철새 도래지로 유명한 샘통이 있다는 등의 얘기를 들으며 보낼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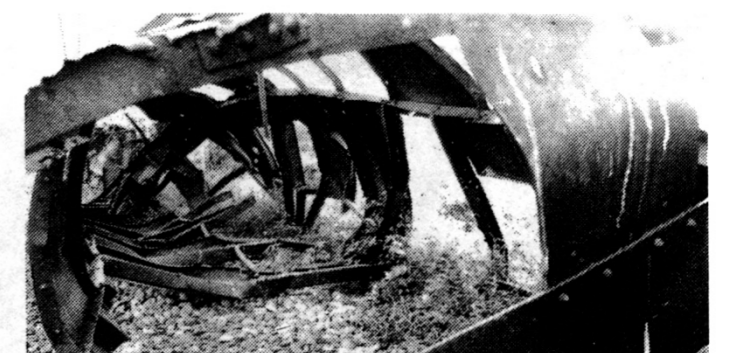
이한탄강의 종류에는 높이 10m 에 달하는 바위가 위용도 당당하게 버티고 서 있는데 홀로 돌 떨어져 서 있는것이 외로워 보였던지 고석 바위라는 이름이 붙었다. 바위틈으로 는 사람 몇이 들어갈 수 있는 석실이 여럿 눈에 띄는데 그 곳에서 회대의 도적 임객정이 은거하며 민란을 도모했다는 전설이 내려오 고 있다. 그리고 다시 보니 고석이 임객정의 군화 모양이라는 말이 그 름듯하게 들려온다.

이 고석바위를 내려다 보는 곳에 위치한 고석정은 10평 남짓의 2층 누각으로 6.25전쟁때 불타 없어진것을 71년에 복원한 것이 지금의 모습인데 화강암으로 깨끗이 닦인 바닥은 이미 신라 진평왕과 고려 충숙왕이 유람했다는 옛정취는 찾아 보기 어려웠다.

철마는 달리고 있다. 남북분단 49년 00월13일 한탄강, 고성정 철의 삼각 전적관에서 가만히 귀 기울여 보면 '근'자로 굵게 흐르는 '한탄'의 소리를 엿들을 수 있다. 평

원봉지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며 깊고 좁은 협곡을 이루는 한탄강. 본디 큰 여울이라는 순우리말 이름이었던 것을 한자말로 음차하여 한탄(漢灘)이란 이름을 갖게 됐다고 한다. 이 한탄강의 종류에는 높이 10m 에 달하는 바위가 위용도 당당하게 버티고 서 있는데 홀로 돌 떨어져 서 있는것이 외로워 보였던지 고석 바위라는 이름이 붙었다. 바위틈으로 는 사람 몇이 들어갈 수 있는 석실이 여럿 눈에 띄는데 그 곳에서 회대의 도적 임객정이 은거하며 민란을 도모했다는 전설이 내려오 고 있다. 그리고 다시 보니 고석이 임객정의 군화 모양이라는 말이 그 름듯하게 들려온다.

이 고석바위를 내려다 보는 곳에 위치한 고석정은 10평 남짓의 2층 누각으로 6.25전쟁때 불타 없어진것을 71년에 복원한 것이 지금의 모습인데 화강암으로 깨끗이 닦인 바닥은 이미 신라 진평왕과 고려 충숙왕이 유람했다는 옛정취는 찾아 보기 어려웠다. 철마는 달리고 있다.



유명한 문구를 담고 있는 월정역 또한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몇해전 다시 세워진 것이다. 전쟁전 금강산 까지 3시간거리를 달렸다는 열차의 잔해는 앙상한 골격만 드러내며 주검처럼 엎드려 있었다.

이 역사 앞에서 민영시인은 "역사는 열차가 달려야 비로써 역사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며 비통한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폐노동당사 해방이후 북한이 세워 사용하던 소련식 건물이다. '북괴의 공산 독재 정권강화와 국민통제 목적으로 세워져 무지비한 고문 학살로 악명을 떨쳤다'란 게시 판의 설명으로는 진짜 무엇을 하던 곳인지 알도리가 없으나 이곳 지하 실과 뒷쪽으로 위치한 방공호에서 당시 수많은 인공들이 발견되었고 이 인공들을 따로 옮겨 묻지 않고 그대로 흙을 덮었다고 하는 얘기는 뼈대만 남은 이 현대사의 유물을 인상있게 했다. 공개된지 채 몇년도 되지않아 온통 조잡한 나사로 뒤덮인 쓸쓸한 노동당사를 뒤로하고 마지막 예정지인 도피안사로 향했다.

도피안사 민영시인은 철원의 붉은 흙이 분단 조국청년의 피로 물든것 같다고 했다. 일찍이 공예가 도움지로 정했었고 임객정의 전설이 살아 있는 곳, 산천 구석구석 전쟁의 기억을 담고 있는 상처입은 땅. 이 곳이 다시 역사의 주인공이 떠오르는 날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날 이리라.

(상략)..... 아, 가을빛 짙은 철원 평야. 역새를 흐느끼는 옛사람터에. 오늘은 국경 없는 바람이 분다. — 민영, 추석날 교양에 서서 (허억철 기자)

도피안사 민영시인은 철원의 붉은 흙이 분단 조국청년의 피로 물든것 같다고 했다. 일찍이 공예가 도움지로 정했었고 임객정의 전설이 살아 있는 곳, 산천 구석구석 전쟁의 기억을 담고 있는 상처입은 땅. 이 곳이 다시 역사의 주인공이 떠오르는 날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날 이리라.

도피안사 민영시인은 철원의 붉은 흙이 분단 조국청년의 피로 물든것 같다고 했다. 일찍이 공예가 도움지로 정했었고 임객정의 전설이 살아 있는 곳, 산천 구석구석 전쟁의 기억을 담고 있는 상처입은 땅. 이 곳이 다시 역사의 주인공이 떠오르는 날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날 이리라.

## ◇문화기행의 봄, 그 허와 실

### 무분별한 현장답사

### 문화유적 파괴의 주범



또한 현장에 이르는 도로표지판이나 현장에 대한 안내문도 부족하거나 그 내용이 매우 부실하여 그곳을 찾는 방문객을 실망시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전문지식을 갖춘 안내인을 거의 만날 수 없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점보다도 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우리 문화에 대한 교육과 정책이 잘못되어 왔던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주체성을 상실하고 무비판적인 서구문화의 수용은 우리 전통문화의 맥을 끊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경제개발 우선주의에 따라 우리의 습서는 국토개발이란 이름아래 울타리, 지도(地圖)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예컨대 우리 전통문화의

기반은 바로 민속문화이며, 민속문화의 뿌리는 농촌이었다. 오늘날 농촌을 찾으면 젊은이를 찾아보기 어렵다. 문화란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사는 삶 속에서 이어지고 또 새롭게 창조되기 마련이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아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어떻게 문화가 이루어 지겠는가. 사람다운 삶을 가꾸어 나갈 수 없는 환경에서 문화는 발전시키자고 소리 높이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며, 나무에서 고기를 얻고자 하는 것과 다를 없다. 한편 문화기행에 대한 열기가 드높고 그에 따른 출판물이 쏟아지는 현상을 마냥 반길 일은 아닌 것 같다. 교묘한 상술과 어우러져 무책임한 내용을 담은 책들이 범람할 경

우 그 해독은 심각하다. 또한 문화유적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볼 때 무분별한 현장답사는 돌이킬 수 없는 문화유산의 파괴를 낳는다. 이러한 우려되는 현상이 벌써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설사 문화유적에 직접적인 파괴는 끼치지 않을지라도 넓게 보면 문화환경이랄까 역사공간의 파괴는 결국 문화유적의 원형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게 만든다. 예컨대 교통편의란 목적으로 도로를 넓히거나 새로운 길을 내는 문제도 심각히 따져보고 난 뒤 결정해야 할 것이다. 유적을 찾는 사람의 편의도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어느 경우든 최우선 순위는 문화재 보존에 두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문화를 향수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문화를 아끼 줄 아는 문화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만 한다. 모든 문화가 지향하는 바는 바로 우리의 삶을 위한 것이므로 이 기선 (박물관 연구원)

## '94 고 향 가 는 길

올해도 변함없이 제10대 학생복지위원회에서는 팔월 한가위 귀향사업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동악의 학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귀향 한마당을 즐겁고 풍요로운 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학우 여러분 뿐만아니라 동악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주체(학생, 교수, 교직원, 동문, 중구 지역민)면 누구나 편리한 고향길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아 래

1. 귀향차편 접수일: 9월 5일(월)~9월7(수) (접수시간: 오전10시~오후5시)
2. 접 수 장 소: 중앙 도서관앞
3. 접 수 비: 4,000원(도시락 및 기념품 제공)
4. 출발일시 및 장소: 9월 16일(금) 오전 11시 대 운동장

번호	종착역	경우1	경우2	경우3	경우4	경우5
1	속 초	홍 천	인 제	원 통	속 초	
2	삼 척	강 통	동 해	삼 척		
3	서 천	천 안	은 양	예 산	대 천	서 천
4	안 동	원 주	제 천	영 주	안 동	
5	청주(직)					
6	상 주	장호원	충 주	점 촌	장 주	
7	논 산	공 주	부 여	논 산		
8	대전(직)					
9	대 구	김 천	구 미	대 구		
10	대구(직)					
11	포 향	경 주	포 향			
12	부산(직)					
13	진 주	마 산	진 주			
14	마산(직)					
15	군 산	이 리	군 산			
16	남 원	전 주	남 원			
17	광주(직)					
18	광 주	정 읍	광 주			
19	목 포	영산포	목 포			
20	여 수	순 천	여 수			
21	고 흥	순 천	별 교	고 흥		

\*접수상황에 따라 예비차량 확보하여 노선별 증차를 할 수도 있으니, 각 향우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 학생복지 위원회실 혜화관 1층 (☎구내 260-3681, 직통 265-0723)

## 제10대 학생 복지 위원회

## '95년도 일본공공대학 단기장학 유학생 선발

- 일본 유공대학과의 자매협정에 따라 1년간 유학할 학생을 선발함.
1. 선발분야 및 인원
    - 가. 선발분야: 유공대학 개설 전학과 나. 학비, 기숙사비 전액 지원, 월 10만원 장학금 지급 다. 선발인원: 2명(학부1명, 대학원 석/박사과정 1명) 단, 대학원 지원자가 적을경우 학부에서 2명을 선발한다.
  2. 지원자격
    - 가. 학부 및 대학원 재학자로 1년간 휴학이 가능한 자 나.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 다. 해외유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일본어 회화 및 작문에 능통한 자
  3. 제출서류
    - 가. 지원서 1부(소정양식) 나. 학적부 사본 1통 다. 재학증명서 1통 라. 성적증명서 1통 마. 지도교수 추천서 1부(소정양식)
  4. 선발방법
    - 가. 학교성적(30%) 나. 1차-일본어 테스트(필기 20%, 회화 20%) 2차-면접(30%)
  5. 시험일정(서울, 경주 동일함)
    - 가. 원서교부 및 접수: 9월5일(월)~9월13(화) 장소: 국제부 나. 시험: 1차-9월22일(목), 2차-9월23일(금) \* 시험시간, 장소 추후발표 다. 합격자 발표: 9월 28일(수)-국제부 앞 게시 (본관 2층) \* 경주캠퍼스: 원서 교부 및 접수-경주 학생과 시험은 서울에서 일괄 실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제부로 문의 바람(전화 260-3024)

공인회계사, 세무사, 행정고시 등의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예상문제들을 다양한 유형별로 빠짐없이 망라한 수험생 필독서, 재무회계 분야의 어떤 어려운 시험문제도 이 책 한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참신하고 수준 높은 회계학 문제집!

김 영 청 교수 (문제편) 정가 ₩9,000 (해답편) 정가 ₩17,000

**재무회계연습 동국대 출판부** ☎ 260-3482~3

**취업특강안내**

'95. 2월 졸업예정자 및 재학생의 취업준비를 위한 특강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학생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아 래

1. 일시: 1994. 9. 13(화) 14:00~17:00
2. 장소: 동국관 L301
3. 대상: '95년 2월 졸업예정자 및 재학생 전체
4. 내용: 취업에 따른 제반 준비요령 (제출서류작성법, 면접요령, 채용경향, 기타 취업정보)
5. 주최: 학생처 취업과
6. 기타: 담당 취업관리자료를 배부함

**학 생 처 장**

# 95학년도 신입생 입시요강 확정

## 총4천8백명 선발, 1월9일 논술및 면접

95학년도 신입생 선발 전형일자가 내년 1월9일로 확정됐다. 서울 2천8백50명, 경주 1천9백50명 등 총 4천8백명을 선발하게 되는 95학년도 입시요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차모집의 경우 △원서접수: '94. 12. 26(월)~27일(화) △면접고사: '94. 12. 29(목) △모집학과: 불교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법학과, 경찰행정학과, 경제학과, 정보관리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건축공학과, 한의예과, 의예과 △모집정원: 모집학과 정원의 10% △지원자격: 대학수학능력시험 계열별 전국순위 상위 6% 이내자(단, 한의예과, 의예과는 상위 2%) △전형방법: 고교내신성적(40%) + 대학수학능력시험(60%) 등이다.

또한 전기모집은 △원서접수: '95. 1. 2(월)~1. 4일(수) △입시일자: '95. 1. 9일(월) △대학별고사: 논술과목 △대학별고사일시 실시해당학과: 서울캠퍼스의 예·체능학과를 제외한 전학과(경주캠퍼스 전학과 제외) △실기고사: '95. 1. 8(월)~1. 11일(수) 사이에 각 해당학과별로 실시(단, 경주는 11일) △합격자발표: '95. 1. 25일(수) 이전 △전형방법(예·체능제외): 고교내신성적(40%) + 대학수학능력시험(60%) + 대학별고사(10%) 등이다.

한편 산업체 근무자 특별전형은 △모집학과: 서울캠퍼스 13개학과(영어영문, 경제, 무역, 경영, 회계, 정보관리, 북한, 반도체, 전산통계, 신방, 광고, 전산과학, 총어 중문), 경주캠퍼스 5개학과(법학, 경영, 회계, 관광경영, 정보산업) △모집정원: 서울캠퍼스 모집정원의 50%, 경주캠퍼스 모집정원의 40% 선발 △지원자격 특별규정: 서울, 인천 및 경기지역 산업체 근무자(서울캠퍼스), 경주시 인근지역(80km 이내) 산업체 근무자(경주캠퍼스) 등으로 이뤄진다.

이외에도 특기자 선발종목 및 학력기준은 △분야: 체육 △종목(선발인원): 야구(12), 축구(12), 농구(2), 레슬링(1), 사격(2) △수능시험 최저기준: 40점 이상 등이다.

대학별고사로 '95학년도에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본교는 지난 7월부터 4개 고등학교대상으로 모의논술시험을 실시하고 오는 10월말에 2차 모의논술고사를 실시하여 재점차시 등 적합성을 알아보고 내년은 논술고사를 대비하고 있다.

### ◇경주 총학생회장 사퇴 의사 표명을 바라보며

## 올바른 상황판단 후 수습해야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된 불교문화대 학생회와 총학생회간의 자보공방전을 유래없는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력승 총학생회장이 사퇴했다. 사상초유의 사건이 서울캠퍼스에 이어 경주캠퍼스에서도 발생한 것이다.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된 불교문화대 학생회(회장=박치민·불교4 이하 불대)와 총학생회(부회장=박형규·철4 이하 총학)간의 자보공방전은 유래없는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총학생회장과 기획부장이 통일교 원리연구회에서 주최한 '한국대학생 지도자 방미연수'에 참가한 사실이 뒤늦게 불대에 의해 밝혀지면서 부터다.

그러나 총학생회장과 총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은채 사건은 총학생회장과 기획부장의 사퇴로 종결됐다.

그로 인해 이번 사건의 흐름은 불대입장에 의해 이끌려왔는데, 이 과정에서 사전 연수상의 조건과는 다른 통일교 원리연구회측의 과정

에 대해 총학생회장이 완전히 묵과해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처음 원리연구회측의 제안은 총학생회장이 자보를 통해 밝혔던 바와 같이 '전국대학생 지도자들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취지라고 했으나 연수도중 세계평화청년연합에 가입할 것을 요구했으며 일방적으로 문선명(통일교 총재)씨와의 대담, 문선명씨 사택방문등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내연수일정으로 계획됐던 박흥(서강대)총장의 특강은 실시되지 않았다"고 총학생회장은 밝혔다.

또한 이와같은 세부일정에 대해 원리연구회측은 연수 참가자들에게 일체공개하지 않았으며 "이력승 총학생회장은 통일교 교리연구와 관련된 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참가자중의 한명이 전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채 사태수습을 위해 총학생회장이 사퇴를 결정한 것은 성급한 판단이었다.

한편 불대측은 연수내용에 관련된 자료확보 과정에서 총학생회의 L·T기간을 이용해 임의로 총학생회실을 수색한 것으로 알려져 불대의 입장해명과 총학생회에 대한 공개사과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난 3일 비상중앙운영위원회 회의도중 회계학과, 야간 경영학과, 야간 법학과등 3개학과 과학회 회장들의 이의제기처럼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한 사건처리라는 여론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불교종립대학이라는 큰 명분과 함께 개인의 자유의사 또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조속한 사태수습이 중요한 만큼 올바른 상황판단 또한 중요하다. (윤전화 기자)

## 공개질의 학생처 답변

### "총장선출방식 연구하자는 것"

지난달 30일 있었던 '총장 직선제 사수와 재단이사장의 총장직선제발언 규탄대회'를 마치고 재단이사장측에 전달했던 공개질의서에 대해 학교측이 입장을 제시했다.

지난 4일 학생측에 전달된 답변서는 노안섭(식품공학) 학생처장이 작성한 것으로 "이사장의 뜻을 물어 대신 답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장의 화사보고회 발언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직선제보다 나은 제도를 연구·모색해 보자"라는 답변을 했고, 학생들의 두번째로 질의한 재단인사에 관한 부분에는 "재단직원의 인사는 이사장의 고유 권한이며 정관상 징계에 의하지 않고는 감압적인 인사조치는 할수없다"고 밝혔으며, 공청회 제안에 대

해서는 "학교당국과 협의한 것이라면 기꺼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답변서를 전달받은 문과대 학생회장 박우영(영문4)군은 "답변서의 내용이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변명에만 급급하다"며 "학생처장이 학생활동지도의 책임부서장으로서 대신 작성했다고 하지만 재단이사회의 질의 내용이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비난했다.

이에 단과대 학생회 연합은 오늘(7일) 공개질의 답변 규탄대회와 함께 '총장직선제 사수와 자주적 총장선출을 위한 학생 대책위' 발족식을 도서관앞에서 가졌다. 이 대책위의 위원장은 사범대 학생회장 안진우(국교4)군이 맡을 예정이다.

## 총여, 학술문화제 개최

### 성교육학교, 연극 등 행사 다양

제9대 총여학생회(회장=김영은·사화4 이하 총여)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교내곳곳에서 '총일과 구별을 꿈꾸는 너에게'란 이름의 제1회 학술문화제를 갖는다.

첫째날(13일)은 개막식 행사로 중앙당에서 김지숙의 '로젤'공연과 김지숙·신미숙등문선명과 함께하는 열린토론회 '여성배우의 만남'등이 펼쳐진다.

14일은 오후5시 소강당에서 '일탈 행위와 성규범'이란 주제로 사이코 드라마, 토론회, 강연회가 있을 예정이고 오후 7시30분부터는 도서관앞에서 야외영화 '나의 아름다운 세탁소'가 상영된다.

마지막날은 오후3시 생활학개념의 성교육학교가 열리고 소강당에서는 풍물패공연과 노래가사비평가 경연대회, 데이트쇼, 행사비디오 상영 등의 폐막제가 오후5시에 있

다. 또한 전신행사로 여학생부처(부처장=박명희·가정교육)와 공동기획한 성의식조사가 있고 일탈행위에 대한 의사표시 성적표, 광고속의 성역할 바꿔보기 등이 전시된다. 수익사업으로 정선대 영화제작 배지도 판매할 예정이다.

총여는 '로젤'티켓 1천부를 도서관과 학생회관 앞에서 어제(6일)부터 판매하고 있으며 티켓값은 5천원이다.

한편 학술문화제 기획팀에서는 행사전반의 실무를 담당할 자원봉사단 '담송이'를 모집하고 있다. 기획팀의 한 관계자는 문화제의 기획의도로 "학교내 성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을 통해 성문화의 정착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 비상 동아리대표자회의

### 공간·복지문제 논의

지난달 비상 전체 동아리대표자회의(이하 전동대회)가 학생회관앞에서 열렸다.

53개 동아리대표자, 중앙운영위 6인, 회장단인등 60인이 참가한 전동대회는 가장 많은 대표자가 참가하여 동아리인들의 공간·복지문제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

60인대표자는 결의문에서 "지난 10년간 동연내부에 누적되어온 동아리공간문제와 복지문제를 학교측은 외면하고 있다"며 3가지 결의안을 내놓았다. 결의안은 다음과 같다. △학교측

은 동아리연합회내의 자치공간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 △학교측은 학생회관의 여러 낙후시설을 개·보수할 것 △학교측은 동아리지원금액을 인상할 것

한편 60인대표자들은 동연부회장 이형재(야간경영4), 동연 기획 및 총무부장 이병근(인철3), 불교학생회 회장 임영관(불교4), 손짓사랑회 회장 이성기(건축2), 중앙운영위원회 대표 권상현(야간무역4)등 5인을 협상단으로 구성하였고 내일(8일) 학교측 대표 5인과 협상을 한다.

이날 의장을 맡은 동연부회장 이형재군은 "소수편중의 동아리사업을 비판하며 60개 각 동아리의 개성이 모두 발휘되는 참된 동아리연합회를 건설하자"고 결의를 밝혔다.

## 학·전·무·대

### 과연 몇명

0...2학기 교수총원작업이 시작되는 가운데 모대학에서는 2명의 교수가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해 눈길.

"계약교수제"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몇몇대학에서는 교수들의 안일한 연구풍토에 경종을 울리고 그결과 재임용에서 떨어지는 교수가 생겼는데, 이 소식을 들은 한학우살 "물론 그렇지는 않았지만 만약 우리학교에도 계약교수제를 도입한다면 과연 몇명이나 떨어질까?"

### 뛰는 마음 뛰는 물가

0...추석이 다가오면 어머니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음아닌 물가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벌써 8월의 물가가 연말역제 목표선인 6%나 인상됐는데, 특히 8월중 물가는 소비자들이 상승률 0.8% 가운데 0.73% 포인트가 과채류 가격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올해는 정부에서 물가잡기에 최대한 노력할 거라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추석의 설레임에 아이들의 마음이 편다고 물가도 같이 뛰납?

### 연대발상

0...동대학우와 연대학우. 연대학우: "우리학교에서 2년 만에 1천억원을 모았다."

동대학우: "우리학교는 근2년 동안 13억원을 모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연대학우: "글쎄, 우리학교는 기독교재단인것을 이용해서 4백교회원들을 벌이고 연세사랑저금통을 만들어 동문에게 보내서 쫄돈모으기도 했는데..."

### 책상의 좌석은?

0...동학인의 공부하는(?) 분위기에 애꿎은 책상만 수난을 당하고 있어.

과학관 뒤 공터에는 강의실이 있어 할 책상들이 비를 맞으며 마모돼가고 있는데.

죽기를 하는 학우들도 마땅한 넷트가 없어 책상을 애용하기도 한다.

이에 본 회전문대자 한마디, "책상은 '모진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림없는 바위'가 아니랍니다"

# 나의 국적은 지구?

"나의 몸은 92개국의 물과 음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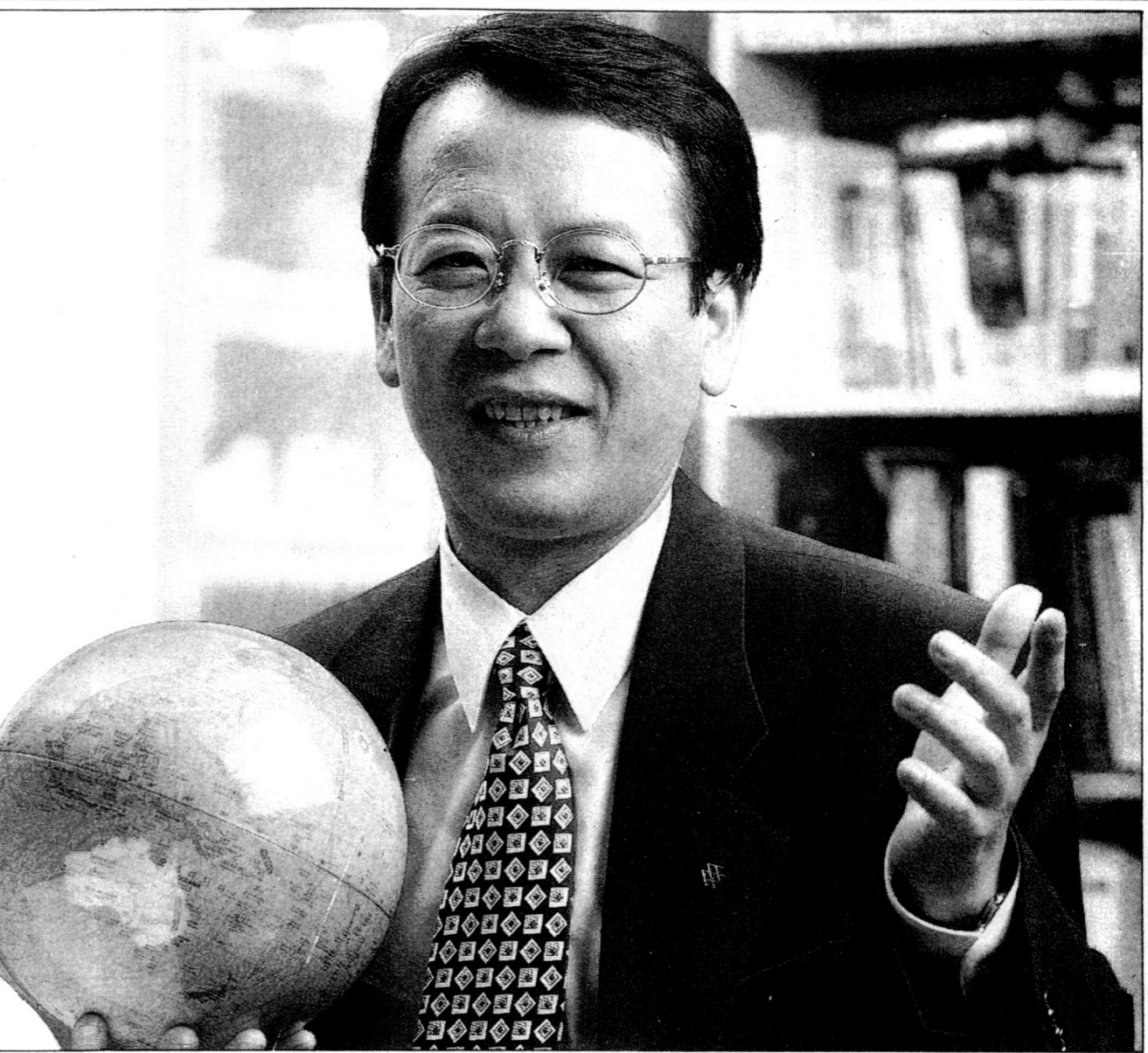
##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세계인 - 21세기를 열어가는 코오롱의 자화상입니다.

바로 여기 이사람입니다. 이란-이라크전의 포연속으로 혼자 들어가 노숙을 하며 양국 병력이 입은 전투복의 50%를 팔아치운 사람. 우리는 국교도 없는 시리아에서 3개월만에 국방장관을 '아저씨(uncle)'로 만들어버린 사람. 그를 기획조정실, 국제화추진팀의 임영호이사. 지금껏 주어진 여건대로는 살아본적이

없으며 목표를 세우고 그 성취를 위해서는 자신의 의식까지 바꾸어 살아온 사람. 이미 코오롱맨들에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두철미한 세일즈맨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나의 국적은 지구"라고 당당히 말하며 지구촌 92개국을 누비는 수출의 참봉 - 코오롱의 21세기를 열어가는 세계화의 주역. 바로 내일, 당신의 자화상입니다.



코오롱그룹 기획조정실 국제화 추진팀 이사 임영호



### '미란다'란 어떤 연극인가?

## '알몸연극', 극의도·분위기에 맞지 않아 사법처리보다 연극계 자체 정화기구 요구

'미란다'는 1980년 극단 고향에 의해 최초로 우리나라 무대에 올려졌다. 원래 이 작품은 존 파울즈의 소설인데 우리나라 극작가 전유숙씨가 각색했으며 원제는 '콜렉터'였다. 이 작품을 각색되던 해부터 계속 '콜렉터'란 원제를 그냥 사용해 왔으나 이번에 공연하면서 여자주인공 이름을 따 '미란다'로 고친 것이다. 이미 그동안 연극을 본 사람들이나 소설을 읽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 이 작품에서는 알몸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편집광적인 생활을 하는 남자 주인공의 비극을 그린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웃은 벗길 필요도 없는 작품이며 또 번진다 하더라도 이 작품은 분

위거나 내용으로 보아 연극성을 잃을 수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극단 고향에서 공연된 해 필자의 기획에 의해 배우극장에서 재공연하였다. 공연되지 얼마 안되어 새로 기획공연하여서인지 아니면 배우때문인지 관객이 첫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많이 모여들었다. 그후 이 작품은 거의 한해 걸러 한 번씩 군소극단이나 대학극단에서 공연되었다.

이번에 문제가 된것은 원제 '콜렉터'를 '미란다'로 바꾼것에도 있지만 아마도 각색자의 허락도 없이 공연한 것이 원인일수 있다. 왜냐하면 극작가 전유숙씨는 작년까지만 해도 공연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

고 있었으며 또 여류로서 여배우를 벗기는 일을 용납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공연도리에 어긋난 행위를 한것이다. 작가허락도 없이 타이틀 비누는 것만으로 윤리자체가 그러나 알몸을 만들수도 있는 생각을 폈을 것이다.

'알몸연극'문젠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예전에도 있었고 10여년 전에도 '백촌'사건으로 예기가 되었었고 최근들어서는 삼금삼금 보일락 말락 행하여 졌다.

그러나 공연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기 어려운 젊은이들이 노골적으로 벗기게 된 것이다. 문제는 뒤에서 그런 것을 악간

시도해 보려면 연극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이들의 책임도 감출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극단에선 80%이상이 여성관객이라고 여겨 남까지 벗기는 행위가 벌어진 것도 모두 올해 행해졌던 일이고 보면 연극인 스스로의 각성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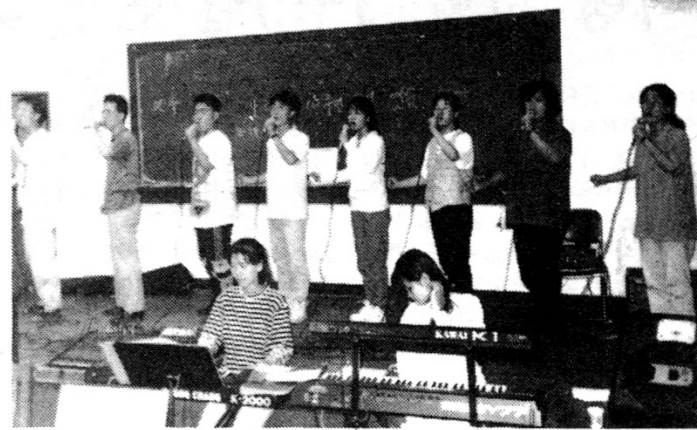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청하니 그들의 대답도 분명치가 못했다. 그럴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필자는 사법처리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한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우리들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자체 정화기구를 만들어야 될 것이다. 사법처리 이후 연극계를 둘러보면 극장마다 빈의자가 늘어가는 것은 누구에게 탓할 것인가?

김 홍 우

(예술대 연영과교수·극작가)

### ◇창립 10주년 기념 공연 앞둔 '아리랑'을 만나 노래운동사·빨치산 재조명 작업 '감꽃'에 담아 진실된 삶의 노래문화 정착 시도



감꽃아 보았겠지  
애비없고 땅도 빼앗긴  
이내 설움도  
올애비 못 잊어서  
감꽃 모진꽃아

'꽃어지지 않는 우리의 노래'를 들려주게 될 '감꽃', 창립10주년 기념 공연을 앞두고 막바지 연습에 여념 없는 중앙노래대 아리랑을 만나보았다.

오는 8일 중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창립10주년을 정리한다는 것 외에도 선배배간의 새로운 상을 정립하고 올바른 사회적 관계를 전파한다는 내부적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사실 현충동회원뿐 아니라 졸업생도 많은 아리랑의 공연은 물론 판소리, 민요, 민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감꽃'은 오봉숙시인의 시집 '지리산 갈대꽃'의 '감꽃'이란 시이기도 하고 거기에 류형선씨가 곡을 붙인 노래이기도 하다. 한 회원은 "예전의 어느 집이나 감나무는 꼭 있었던 만큼 감꽃은 민족적 정서를 담을 수 있는 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감꽃아 보았겠지/애비없고 땅도 빼앗긴 이내 설움도/올애비 못 잊어서/감꽃 모진꽃아' '감꽃' 노래 말을 들으면 공연전반의 흐름을 짐작

할 것이다.

1부공연은 노래발표회 형식으로 진행, 70년대부터 80년대초까지의 '천리길' '사월 그 가슴으로' 87년 이후 노래현장을 담은 '단결투쟁기' '진짜노동자' 88년 통일노래한마당 등 통일을 주제로한 노래의 활성화로 불려진 '조선은 하나다', 90년대의 서정적이고 밝은 '바위처럼', '희망' 등 노래운동의 역사를 되돌아 본다.

2부는 해방후 빨치산의 활동을 재조명하는 노래극으로 대본은 연출을 맡은 신동영 (경제4)군과 조국과 청춘의 일원인 송봉환 (정보관리4)군이 공동창작했다. 신군은 동명의 '학자투진군가'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1부와 달리 2부에서는 8·15해방, 4·3항쟁, 여순항쟁 등의 당시대 상황등을 영상사진으로 볼 수 있어 생생함을 전할 것이다.

또한 직원노조의 박연숙씨와 '조국과 청춘'이 찬조출연할 예정이다. '삶의 노래, 진실의 노래'를 부르는 '아리랑'은 85년창립 이후 그동안 많은 공연중에서도 91년

의 신입생 환영공연 '우리들의 죽음'을 꼽는다. 정태준씨의 노래를 극으로 꾸민 이 공연은 창작곡이 많아 힘들기도 했지만 감동적이었다고

86년부터 3년간 아리랑에서 활동했다는 공연준비위원장 김봉준 (야간경영·94출)등은 "현대노래문화에 대해 '학생으로서의 노래문화 영역을 차별화시키지 못하고 기존 것의 따라가려고만 한다.'"며 "창작과정에서 1인칭적으로 점차 집단 창작이 사라지고 그에따라 집단적 사고도 소홀됨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소설 '태백산맥'에도 나오듯 '감꽃'은 먹을 수 있는 꽃이라 했다. 부자집 가시네들의 목걸이감이나 가난한 집 아이들의 심심함은 요거리를 대주는 맛있는 꽃이라 했다.

공연 '감꽃'을 통해 아리랑은 우리의 진실된 삶을 보여주고 참된 민중문화를 말하고 건강한 노래문화를 정착하는 계기를 이룰 것인가, 자문 이번공연에 거는 기대가 크다. (김소영기자)

### 영화의 페러독스

### 영화의 에로티시즘 논란

## '성'의 차원넘어 '성의 정치성'조망 영리추구 일삼는 무질서한 유통구조 개선돼야

요즘 또다시 예술계 일각에서는 불필요한 논쟁이 일고 있다. 바로 에로티시즘 논란이다. 연극 '미란다' 사건과 영화 '엘마누엘'의 개봉이 그것이다. 이 논란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예술에서의 에로티시즘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논의의 초점을 엉뚱하게 몰고 가고 결국 궁극적인 실천의 주체가 움직이지 않는 개선이란 무의미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영화계에도 또다시 밀어닥친 에로티시즘 논의의 방향은 사실 이해해야 한다. 첫째, 이러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튀어나오는 기준, 상업적 목적으로 벗기면 외설이고, 벗길 이유가 있어서 벗기면 예술이라는 전제는 그럴듯하긴 해도 정확한 해결책이 아니다. 이말은 현실을 무시한 예술시상주의자들의 광란한 잡포대에 지나지 않는다.

두번째로 포르노 전용관 개설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서구와는 달리 포르노전용관이 없기 때문에 '준포르노'성애영화들이 성행한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어중간한 성애영화를 몰아내기 위해서 아예 성인 포르노극장을 개설함으로써 해



결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 논리도 겉으로는 그럴듯 하다. 하지만 이 주장의 맹점은 인간의 본능 충족에만 초점을 맞추었을 뿐 더 중요한 교육의 부분을 놓치고 있다. 성인 포르노 극장이 개설된다 하여 어중간한 성애영화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세번째, 성애 영화의 범람과 남성 거부감에서 사회의 남성욕망을 결부시켜, 결국 모순된 현 사회가 남녀 평등한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야만 진정한 성의 가치가 회복된다는 페미니즘적 논의는 일단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야기이다. 하지만 이는

리도 현실에서 벌어지는 타락한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근본책은 되지 못한다. 또한 너무 남녀 이분법을 적용하면 그에 맞지 않는 사례도 많이 나타날 수 있다.

네번째, 언론의 과장 보도 내지는 왜곡 (media hype) 문제이다. 우리 언론은 그동안 사건의 객관보도라는 미명아래 문제를 부풀리고 호기심 거리로만 취급했었던 그 정확한 문맥을 짚고 진단하며 대안을 제시하는데에는 취약했던게 사실이다. 시민의 눈과 귀인 언론의 과대포장은 성의 가치관을 왜곡시키는 역할도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모든 논

의를 종합하는 의미에서 성애영화의 범람을 단지 '성'의 차원에서만 취급하지 말라는 것이다. '성의 정치성'을 따져야 한다.

그 정치성은 두 가지 방향에서 개선책을 갖는다. 하나는 작품의 분석과 가치판단이며 다른 하나는 영화 유통구조의 개선이다. 전자의 차원에서 볼때 최근 화제가 되는 '엘마누엘 부인'같은 영화는 우리 사회와 정서에 어떤 메시지를 주지 못하는 현실도파적인 성애영화일 뿐이다. 그 영화는 센티멘탈한 음악만이 인상적이다. 반면 '파리에서의 마지막 탭고'는 유럽 부르조아 사회와 파시즘의 권력욕망을 은근히 비판하고 인간주의를 고창하는 높은 정치의식을 담고 있다. 두 작품을 성적 표현의 문제로 비교한다는 것은 하등도용도 안되는 방식이며 어리석은 생각이다.

또한 성애영화 범람하면서 도덕성을 해치는 문제의 원인은 영리추구만을 일삼는 무질서한 유통구조에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는 오로지 정부의 정책의 지에 달려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미학적으로 아무리 영화의 정치성을 평가해준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쓰레기들에 뒤덮여 있다면 그 진가를 관객들이 구분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 재 형

(예술대 연영과교수·영화평론가)

### 메아리 잘팔리는 일본

▲'베스트 셀러'라는 외래어를 우리말로 옮긴다면 어떤 표현이 가장 적절할까? 만약 '잘 팔리는 책' 정도로 표기한다면 그것은 충분하지 못한, 썩 우수한 표현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베스트 셀러'는 말의 의미에는 현재적으로 잘 팔리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읽히고 있는 책이라는 의미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는 책의 내용에 있어 우수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치기준이 상품성에 집착되어 있는 현 사회적 인식속에서 잘 팔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한 책들이 '베스트 셀러'로 불리워지기 쉬운 실정이다. ▲중종 잘 팔리고 있는 책들로 인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 원인은 아마도 그러한 책들이 가지고 있는 즉흥성, 흥미성, 상업성 등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인것 같다. 어찌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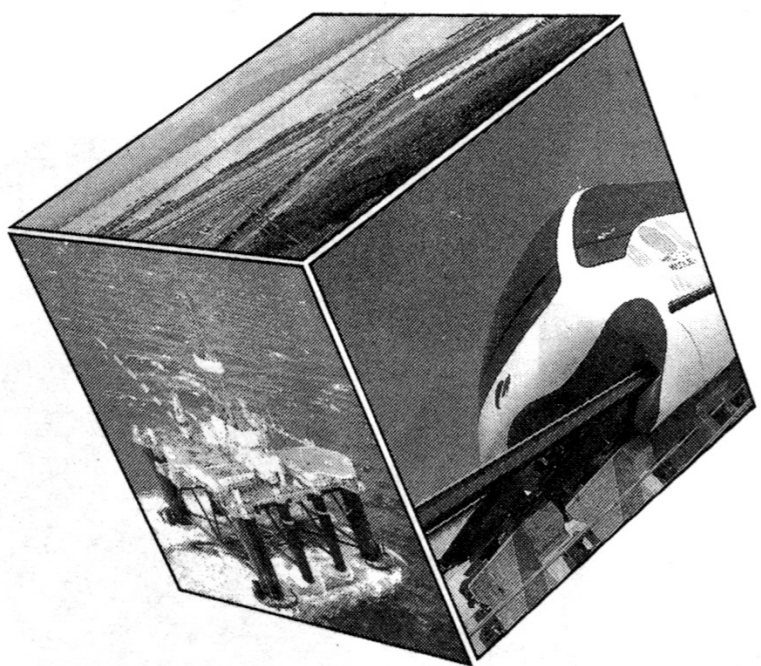
여튼 현재 잘팔린다는 축에 드는 '일본은 없다'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 대한 일본의 한 일간지 서베이국장의 비판적인 논조의 글은 적지 않은 흥미를 갖게 한다. ▲한 주간지에서 실렸던 "국제화를 내세우며 '일본은 없다'라니..."라는 글에서 그는 두권의 책을 '일본에게 배울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나라가 최고다'식의 신경안정제 일뿐이며 국수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이미 들어와 있고 즐기고 있는 일본대중문화는

한-일국교정상화 30년, 한국의 국제화, 일본과의 관계의 깊이를 생각하며 당연한 일이며 현실에 맞지 않는 법률과 명분, 원칙만을 앞세워 일본의 대중문화 개방에 대해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며 친절하게도 우리들에게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자기인식을 당부하며 글을 끝맺는다. ▲이러바 잘팔리고 있을 뿐인 책을 비판하면서 한-일 관계의 깊이를 내세우며 마치 일본대중문화개방은 국제화의 흐름이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그의 글은 어떤 속셈을 가지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기만 하다. 독재정권시대의 굴욕적인 한일회담으로 인해 아직도 풀리고 있지 않은 정신대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보상, 일본고과서 왜곡 문제 등은 어제의 일로 국제화 시대를 맞아 그냥(?) 끝내자는 것인가. (홍)



최 경 인 (52)

### 기술의 現代 세계의 現代



## INFRA 구축 - 現代의 한결같은 의지입니다.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좋은 옷, 멋진 신발도 필요하지만 끈고 튼튼하게 잘 닦인 신발이 더 중요합니다. 개인의 성공, 기업의 생명, 국가경제의 흥망도 결국은 그 '기초'의 굳셈에 달려있습니다. 국제화·개방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경부고속도로, 원자력발전소, 항만, 정보통신사업 등 現代는 지난 50년 동안 한결같이 국가경제 전체를 밑받침하는 SOC (사회간접자본) 구축에 모든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눈앞의 이익보다는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국가기간산업에 적극투자하여 제 2, 제 3의 또다른 가치를 창조하는 現代의 노력은 언제나 현재진행형입니다.

- SOC관련 현대그룹 주요 추진 사업 (총투자규모: 16조원)
- 울진발전사업
  - LNG 열병합 발전사업
  - 남지도개발, 영종도 신공항사업
  - 역세권 택화 및 지하권 개발사업
  - 안전함 고화하여 전용부두 건설사업 등
  - 고속철도차량사업

